

개교 98돌 ...중국 과학교육의 전당

北京대학 (Peking University)

1898년 창설된 京師大學堂이 전신인 북경대학은
 청왕조가 멸망한 1921년
 북경대학으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경대학의 교수와 연구원은 모두 2천5백51명이며
 대학본과, 대학원, 성인교육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2만여명에 이른다.
 창립 때부터 민주화와 과학의 전통을 이어온 북경대학은
 항상 중국의 새 思潮를 이끌어 중국 근대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다.

북경대학의 전신은 1898년에 창설된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이다. 북경대 설
 립은 19세기 중엽이래 중국의 진보·개
 혁역량이 부패한 청나라와 장기간 투쟁
 해 온 결과로서, 무술유신(戊戌維新)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그것은 경사동문관
 (京師同文館, 1862년 중국에서 최초로
 생긴 공립전과학교)이 기초가 되었던 것
 이다.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왕조가
 멸망하자 1912년부터 북경대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새 思潮 이끌어온 名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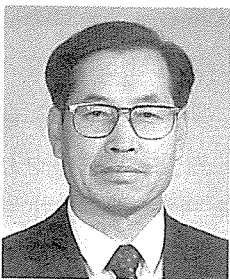
북경대학은 설립 이래 세차례의 중요
 한 변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1917년에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가 채원배(蔡元培)
 가 총장으로 되어서 학술연구와 사상
 자유를 제창하면서 대규모의 정돈과 개
 혁을 거쳐 북경대학을 자산계급 현대화
 대학으로 되게한 때와 새 중국이 성립된

후 1952년에 진행된 전국 범위에서의
 대학, 학부조정으로서 북경대학이 문이
 과대학으로 된 때인데, 그때는 전면적으
 로 소련을 모방한 경향이였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북경대학은 제3차의 중요한 변동
 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북경대학은
 자연과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인문과
 학, 관리과학, 교육과학, 언어과학, 의
 약과학과 신행공정과학 등을 포함한 새
 로운 종합대학으로 기초과학을 우세로
 한 중국에서 제일 큰 명문대학으로 되어
 있다.

북경대학 캠퍼스는 북경시 서북교의
 해전(海澱)원림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북쪽은 원명원유지(圓明園遺址), 서쪽은
 유명한 명승지 이화원(頤和園)과 인접
 해 있다. 캠퍼스는 170ha로 “향서누각
 (亭榭樓閣), 호광탑영(湖光塔影), 춘일
 기려(春日綺麗), 하유음예(夏柳蔭翳),
 추엽홍염(秋葉紅艷), 동백은장(冬柏銀
 裝)”이어서 많은 선생과 학생들이 생활,
 공부, 연구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북경대학은 창립시기부터 민주화와 과
 학의 전통이 있어 항상 중국의 새 사조
 (思潮)를 이끌고, 많은 인재를 배양했
 은 뿐 아니라, 수많은 과학연구성과를 내면
 서, 중국 근현대(近現代)발전에서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모든 면으로 보아 “근분



安泰庠

〈북경대 지질학과 교수〉



▲ 북경대학 캠퍼스내 미명호(未名湖-앞), 수탑(水塔-왼쪽), 화신묘(花神廟-오른쪽)

(勤奮), 엄근(嚴謹), 구실(求實), 창신(創新)의 교훈이 북경대학의 잘 반영하고 있다.

2만여명 재학 ... 기초과학 중시

북경대학의 교수와 연구원은 모두 2천 5백51명인데, 그중에 교수가 7백60명이고, 부교수가 9백32명으로, 전국에서 교원의 질이 제일 좋은 대학이다.

대학은 본과, 대학원 및 성인교육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본과는 44개 원(院) 혹은 학부(系), 84개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재학생 수는 9천2백여명이다. 대학원에 1백31개 전공의 석사학위를, 75개 전공의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있으며, 현 재학생수는 3천1백여명이다. 성인교육대학은 지금 4개 원과 학부에서 특수부와 국가공무원전수과(專

修科)를 운영하고 있고, 6개 원과 학부에서 야간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학생은 8천5백여명이다. 지금 북경대학에는 60여개 국가와 지구에서 온 장기(2년 이상)유학생 6백여명이 있다.

중국은 대학입학시험이 전국통일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북경대학이 먼저 학생들을 뽑음으로써, 최우수학생만이 북경대에 들어올 수 있다. 지금 북경대에는 세계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올림픽경쟁에서 1,2,3등을 차지한 학생이 80명이나 있고, 각 성(省) 혹은 시(市) 대학입학시험에서 1등을 한 학생이 30명이 있다.

북경대학은 항상 기초과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그 교학시간(혹은 학점)은 총교학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또 학술수준이 높고, 교학경험이 많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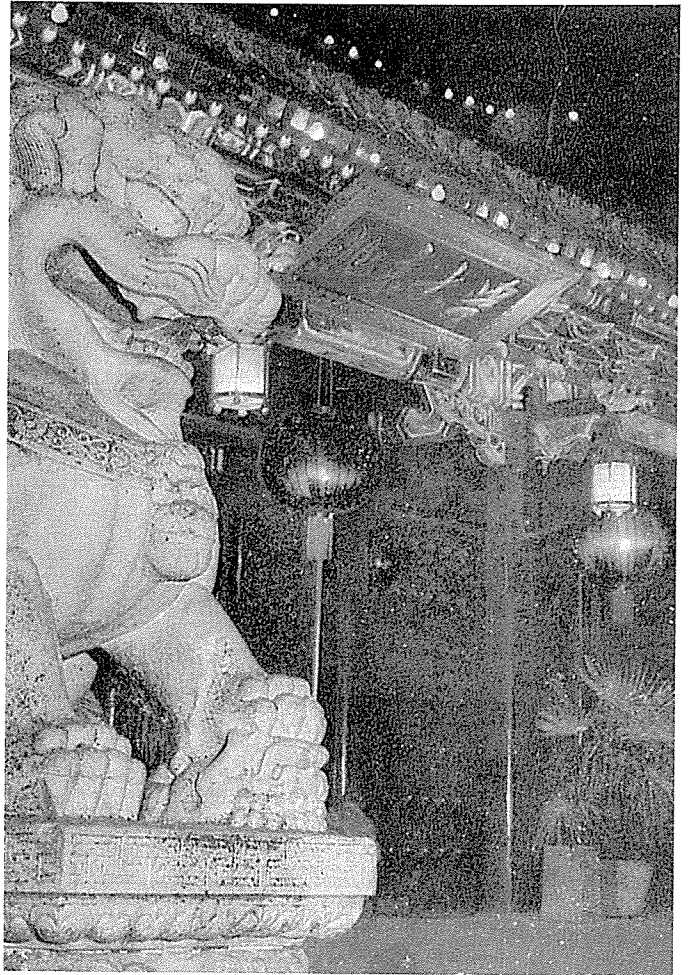
만이 가르치게 되어 있다.

북경대학의 일반학제는 4년이며, 학점제로서, 최저 1백50학점을 얻어야 졸업하게 된다. 학생은 다른 학부 혹은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총학점에 도달하면 4년 전에도 졸업할 수 있으며, 재학 도중에 휴학했다가 다시 돌아와 공부할 수도 있다. 능력이 있는 학생은 2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전공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재학 도중에 학부 또는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도 있다.

80년대 이래 중국 국가건설과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또 북경대의 질 높은 교수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북경대학은 연구기구를 많이 조정하고 확충하였다. 지금, 북경대에는 수학, 이론물리, 중리자물리, 미전자, 분자생물

학, 외국철학 등 연구소가 28개, 연구중심이 14개, 국가중심실험실이 15개가 있다. 북경대 과학연구의 성과는 항상 전국 각 대학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술간행물은 「북경대학학보(자연과학판)」, 「북경대학학보(철학사회과학판)」, 「경제과학」 등인데 학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 8개이고, 각 학부(혹은 원)에서 편집하는 간행물 「북경대학수학총서」 등이 있다.

1902년에 창설된 북경대학 도서관은 본관과 각 학부(혹은 원)에 있는 분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관의 건축면적은 24,500㎡(1997년이면 50,000㎡로 확장된다)이고 장서는 5백여만권으로 그 규모는 중국에서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서중 중문 고적서적만해도 1백60만권으로서, 그중 진본(珍本)이 1천5백종 16만권, 수당(隋唐)시대 돈황첩(敦煌卷子)이 2백종, 5대(五代)의 각인본(刻印本) 「문수사리보살상(文殊師利菩薩象)」, 북송(北宋)시대 「왕능변(王陵變)의 필사본(寫本)」, 북송시대(1103년) 「대당서역기(代唐西域記)의 각인본(刻印本)」, 「대명일통기(大明一統記)」, 「자연재중평석두기(脂硯齋重評石頭記)」, 「구라과경록(歐羅巴鏡錄)」, 「정공파계초(定公破戒草)」, 「대청실록(大清實錄)」 등을 들 수 있고, 외국문 도서로는 「Elementorum」(1572년판), 「Principia philosophiae」(1672년판), 「The Works of the Honourable Robert Boyle」(1722년판), 「I. Newton pusula」(1744년판), 「Critik der reimen Vernunft」(1781년판), 「Shakespear's Works」(1623년판), 「Schiller Galerie」(1859년판) 등을 들 수 있다. 장서중 신문은 2만5천여종으로서 그중에는 1896년에 발행한 유신파(維新派)들 신문 「시무보(時務報)」가 다



북경대학 정문 ▶

갖추어져 있고, 영국의 「Nature」도 1869년부터 지금까지 한권도 빠짐없이 다 소장되었다.

한국 유학생 급증 ... 3백여명

지금 북경대학 출판사의 전신은 1902년에 설립된 경사대학당역서국(譯書局)으로서, 지금까지 중국의 문화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출판사는 5부 7개 편집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년 2백~3백 종류의 책을 출판하고 있다.

학교에는 또 방정집단(方正集團)같은 중국에서도 헤아릴만한 산업기구들도 있다.

북경대학은 30여개 나라 혹은 지구의

80여개 대학과 자매관계를 맺고 있고, 60여개 나라 혹은 지구의 단기와 장기 유학생 9백여명이 있다. 한국 유학생은 3백여명이 된다. 그중에는 중국어단기연수생, 대학생 뿐 아니라, 석사생과 박사생도 포함한다.

북경대학에 재학중인 조선족 학생은 80여명으로서, 그 수는 중국의 다른 어느 민족에 비해도 총인구비례에 비하면 훨씬 높다. 이것은 조선족 교육수준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는 또 20여명이나 되는 조선족 교수(문, 이과에 각 2명), 부교수(문과에 6명, 이과에 4명), 의사 2명이 있다. ⑤7